

사랑나 있어 96/5

여자와 남자

등록일	비고
A11	18

노동자와 동성애(2)

서동진 / 문화평론가
게이인권운동가

노동자와 동성애 사이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면 모두들 코웃음을 칠 게 뻔하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떤 노동자는 살다 보니 별 개뻐다귀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버럭 역정낼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아주 없는 게 아니다. 목젓 언저리에서 핏지락거리는 이야기를 대뜸 뱉어내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러다 큰 코 다치지, 쪼쪼.’

노동자, 사회체제가 작동하는 경향성

동성애와 노동자 사이에 그렇게 뉘레야 뉘 수 없는 관계가 묵직하게 자리잡고 있다면, 무슨 연유에서 그런지 차근차근 밝히고 또 왜 그 말이 타당한지 조목조목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노동자다움이란 무엇인지 대충이라도 밝혀보는 것이 순서이리라.

노동자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노동자다움을 정의하는 근거는 그저 하나로 충분하고 족하다고 말한다.

이들테면 노동자는 봉급생활자라는 것, 임

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로 자본가처럼 자신의 생산수단을 갖지 못해 스스로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몸뚱아리와 노동력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말인 즉슨 절대 틀리지 않다. 아니 옳은 정도가 아니라 노동자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으뜸가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다움을 이해하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규정은 아니라는 점 역시 주의하자.

사실 노동자라는 말은 노동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지배하고 지배 받는 사람으로 나뉘고 또 그 관계를 맺는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김씨와 이군이 이렇게 먹고 살기 때문에 노동자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가를 가리키는 게 바로 노동자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라는 말은 어떤 사회나 체제가 움직이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 줄여 말한다면 어느 사회가 작동하는 경향, 혹은 추세를 가리키



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임금관계에 따라 사회 집단이 나뉘어지듯이 그와 닮은 꼴로 혹은 그와 잇닿아 있는 여러가지 삶의 모양과 특성 역시 계급적으로 나뉘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참으로 알각게도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도 이렇게 계급적인 경향,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계급 구분의 경향이 스며들어 있고 또 꿈틀거린다.

이러하면 자본가답게 예술을 즐기는 방식이 있고, 자본가답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방식이 있으며, 또 부부생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자본가다운 게 있다.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보수영역인 성(性)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에 계급적인 경향이 있음에도 우리들은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훌륭한 예술이 있고 저열한 예술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클래식이 있고 대중음악이 있을 뿐이라 생각한다.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있고, 모든 인간이 행하는 짝짓기의 풍습이 있고, 또 그건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능히 알 수 있는 일이라 큰소리 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백여년 동안, 즉 한 세기 동안의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던 생각들은 차츰 허물어지고 만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노동자와 자본가들이 자질구레한 생활의 켜켜 속에서 얼마나 서로들 씨름을 하고 또 다투어 왔는지가 보이기 때문이다.

아다시피 노동자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다. 그들은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그저 자신을 팔아먹고 사는 자신의 쓰라린 운명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는 세상의 변화에 누구보다 겁을 내고 또 심지어 역사의 퇴보에 앞장서기도 한다. 그만큼 자신이 처한 삶의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과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 항상 신경을 쓰고 이런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 때문에 파업도 망치고, 심지어 나치즘같은 반노동자적 체제를 만들어 내는데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의 보수적인 태도가 완

여자와 남자

고하게 버티고 있는 곳이 있다면 성(性)이다. 이 때 성(性)이라 부르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에서 오르가즘을 맛보기 위해 덤벼드는(?) 섹스란 뜻의 좁은 의미가 아니다. 보다 넓은 의미의 성(性)이란 우리가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관계와 감정, 태도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性)이란 연애와 사랑, 결혼과 가족, 섹스와 질병같은 것을 모두 아우르고 동시에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태도 — 이를테면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아버지다움과 어머니다움 따위 — 를 모두 감싸는 넓직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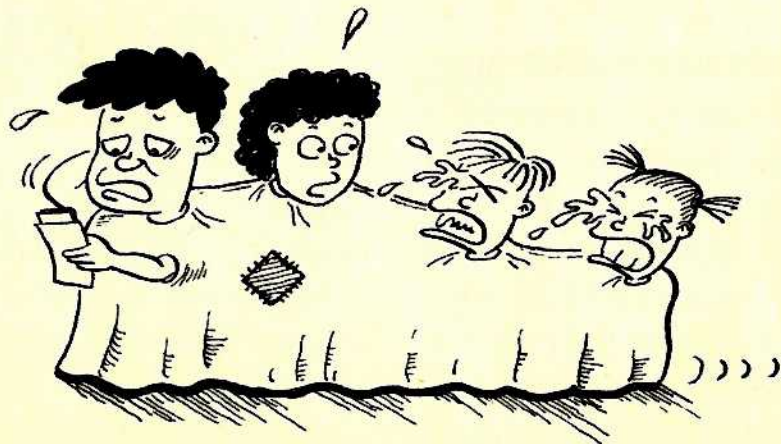
정말 불행하게도 노동자와 노동운동은 사회의 진보적인 변화를 위해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독 성(性)과 개인적인 생활이라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아예 편전을 피우기 일쑤였다. 심지어 노동운동의 역사를 꼼꼼히 읽다

보면 노동운동은 여성의 권리나 다른 성적(性的) 문제에 있어 보수적인 개혁을 주동하기 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파로 만들어진 세상의 인심과 풍속 때문에 노동자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그 대가를 달게 치루어야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래저래 그것을 모두 둘러주고 밝혀줄 여유가 없다. 이 글은 그저 노동자와 동성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 할애되어 있다. 그래서 글쓴이는 노동자다움과 동성애 사이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래도 년지시나마 노동자는 성(性)의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정도를 짚어 볼 심산이다.

지난 호에도 말했듯이 노동자들 가운데도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다. 하지만 조금 엉뚱하게 말하자면 모든 노동자는 이성애자(異性愛者)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럼 왜 그토록 얼토당토않는 말을 억지로 주장할 수 밖에 없을까.

물론 노동자들 가운데도 동성애자가 있지



만, 노동자다움이란 기준에서 볼 때 노동자들은 모두 이성애자라는 말이 맞다는 의미이다.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노동자다움이란 말이 지니는 본래적인 경향을 생각한다면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다.

이성에 제도와 함께 움직이는 임금제도

먼저 노동자들은 생존방식이란 면에서 필경 이성애적(異性愛的)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그 임금이란 말 앞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글씨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가족)임금이라는 말이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통해 자신이 먹고 살 것들을 장만하고 또 그에 기대어 살아간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임금은 노동자가 다른 예비노동자들을 기르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모든 임금은 그 가운데에 가족이란 제도를 전제하고 있고, 또 부모와 결혼이라는 사회관계를 이미 계산에 넣고 있다. 그래서 모든 임금은 가족임금이고 더 과감히 말하자면 임금제도야 말로 이성애(異性愛)라는 성(性)제도와 함께 움직이는 사회제도이다.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위해 투쟁할 때, 그리고 올 해 노동자들의 적절한 임금인상 비율을 토론하고 결정할 때, 알고보면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 가족제도와 결혼제도를 심각하게 고려한다. 그런 점에서 임금제도의 발달은 동시에 성(性)을 둘러싼 사회제도의 변화와 평행하게 움직인다.

사회복지의 비율을 늘리고자 하는 것도, 알고보면 노동자가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의 생계와 행복을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과 비용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운명적이고 숭고한 사랑이라는 감정의 형태도, 알고보면 지난 1세기 동안 노동자다움이라는 사회제도가 유지되면서 만들어진 사회적 산물에 다름 아니다(참고로 말하자면 자본주의사회 이전만 해도 부모가 자식을 반드시 기르고 또 둘 사이에 피보다 진한 사랑의 감정이 있다고 믿는 건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여러가지 사회정책 속에 성(性)에 대한 태도와 결정이 뒤섞여 있다. 지금 말한대로 라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을 이미 이성애(異性愛)적으로 살아가도록 운명지워져 있다. 그들은 기혼이나 미혼이나의 여부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달리 평가받고, 또 그런 탓에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나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나 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모든 노동자들이 이성애(異性愛)적이란 것이 말이 되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임금관계를 없애거나 바꾸기 위해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제도 역시 그와 평행하여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제도 속에 성(性)을 둘러싸고 짜여진 다양한 규칙과 질서가 있는 한, 노동자가 자신의 운명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수많은 싸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동성애 노동자의 삶은?

그렇다면 노동자들 중 수많은 동성애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지난 호에서 말했듯이 동성애란 동성(同性)에게 끌리고 또 동성(同性)을 사랑한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성애처럼 독자적인 인

간관계이고 감정의 형태이며 또 사회제도이다. 동성애란 일차적으로 비(非)가족적이고 비(非)결혼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다.

사정이 이렇진대 동성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고단하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자란 사회 집단은 이성애(이성을 선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 결혼, 연애 등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성제도란 의미의 이성애임을 다시 한번 신경써 주시길)라는 사회제도와 불가분의 연관관계가 있는 탓이다. 그래서 동성애 노동자로 살아가는 일은 자신의 노동자다움의 원칙을 위배하며 살아감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서구의 동성애자 노동자들은 슬기롭게도 많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의 삶을 결정하는 임금제도에 대해 과감히 비판하고, 또 자신들의 관계를 '가정적 동반관계(domestic partnership)'라 부르며 그에 대해서도 적절한 임금과 대우를 보장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다른 이성애자 노동자들 가운데서 결혼이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교제와 인간관계를 바라는 노동자들 역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우기 이 동성애자 노동자들은 반(反)노동자주의가 극에 달했던 레이건·부시 정권의 시대에 외롭고 힘겹게 노동운동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그들의 투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계급에 기초한 성(性)제도와 싸워야

나는 노동자다움의 문제와 동성애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한가지 만을 들

어 설명을 했다. 하지만 노동자다움을 결정하는 문화적 태도 역시 동성애와 이성애의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지면 사정으로 다른 기회를 빌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어쨌든 노동자와 성(性)의 문제가 어떻게 맞물려 움직이는지를 알리지는 않았나 싶다.

세상 어디에나 구분과 계급이 존재하듯 동성애자들 가운데에도 계급이 존재한다. 그리고 동성애자 자본가가 있듯 동성애자 노동자도 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듯 동성애란 방탕과 낭비를 일삼는 계급에나 있는 취미가 아니다. 도리어 역사적으로 보면 동성애는 노동자들의 풍속이란 이유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경멸당한 적도 있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에는 바로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가고 또 그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드는 성(性)의 제도와 싸움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주변에 있는 동성애자 노동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 노동자야말로 자신의 노동자다움으로부터 위협당한 채 겹겹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반(反)노동자적 사회의 희생양이기 때문이다. ■